

여수 석유화학단지 가동차질 우려!

LG정유 파업하면 나프타 수급차질 불가피 ... 국내소비의 20% 공급

LG-Caltex정유가 파업으로 석유제품 생산을 중단하면 여수석유화학단지 소재 석유화학기업들이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우려된다.

LG정유는 석유화학제품의 기초원료인 나프타(Naphtha)를 하루 14만1000배럴 생산해 국내 전체 소비량의 20%, 여수산업단지 소비량의 40%를 공급하고 있다.

LG정유는 여수산업단지에서 LG정유 공급 나프타를 원료로 연간 매출 22조원 상당의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석유화학기업들의 가동차질이 불가피해 하루 241억원의 매출 손실이 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LG정유는 노조가 파업을 결행하면 직접 손실액만 하루 총 500억원이 넘고, 국가경제에 미칠 직간접적인 영향이 엄청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LG정유의 하루 평균 석유제품 생산량은 53만9000배럴로 동력기관의 연료인 휘발유, 항공유, 등유, 경유는 23만7000배럴로 국내 전체 사용량 82만4000배럴의 28.8%를 공급하고 있다.

LG정유는 현재 하루 평균 62만배럴의 원유를 가공해 배럴당 35달러(4만2000원)씩 260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이밖에 아시아 석유시장의 석유화학제품 가격이 배럴당 평균 5달러 정도 폭등할 가능성이 있어 국가 전체적으로 하루 132억원의 경제적 부담이 추가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직접손실 외에도 국내경제 전반에 대한 파급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LG정유가 생산을 중단하면 승용차와 항공기, 선박 등은 물론 화력발전소, 군용 유류 등의 수급도 차질을 빚어 경제적 타격은 물론 수송대란에 따른 극심한 사회적 혼란도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해외투자 위축과 국가의 대외 신용도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Chemical Journal 2003/08/11>